

# 내년 HBM 생산·판매 확대… “AI 메모리 리더십 공고히”

## SK하이닉스 컨퍼런스콜

향후 5년간 HBM 수요 증가 전망  
M15X팹 등 생산능력 빠르게 확대  
“차별화 기술 바탕 고객수요 대응”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와 고대 역폭메모리(HBM) 공급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5년간 HBM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 투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29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HBM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급이 단시일 내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다. 수요 대비 공급은 2027년까지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HBM은 2023년부터 완판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 또한 현재 수익성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지난 9월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한 HBM4



29일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전경.

/뉴시스

는 고객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고 업계 최고 속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회사는 이를 4분기부터 출하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는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로 D램과 낸드 전 제품에 대해 내년까지 고객 수요를 모두 확보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최근 클린룸을 조기 오픈하고 장비 반입을 시작한 M15X를

통해 신규 생산능력(Capa)을 빠르게 확보하고 선단공정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2년 공사 끝에 M15X 팹을 조기 오픈하고 첫 장비반입을 시작했다”며 “내년부터 HBM 생산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메모리 수요가 기존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



HBM4제품 이미지.

/SK하이닉스

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파 확대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용인 클러스터 1기 팹 역시 “향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할 계획으로, 회사는 시황에 맞는 최적화된 투자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HBM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용 메모리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고른 수요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안정적으로 양산 중인 최선단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해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풀 라인 업’ D램 제품군을 갖추고, 공급을 확대해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낸드에서는 세계 최고층 321단 기반 TLC, QLC 제품의 공급을 늘려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김우현 부사장(CFO)은 “AI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시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며 전 제품 영역으로 수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하며 AI 메모리 리더십을 공고히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고용노동부, ‘노사정 TF’ 출범

# ‘퇴직연금 의무화’ 본격 추진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등 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환점 될 것”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출범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체 임금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근절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차이가 큰 만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논의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 것은 지난 2001년 퇴직연금제도 최초 도입 논의 이후 24년 만이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위한 발제와 자유 토론을 격주로 진행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으로, 올해 안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상 속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근로자의 연금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퇴직 시 근속기간에 비례해 목돈을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 체불의 위험이 크게 낮고, 적립액을 활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의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전체 임금 체불액의 40%가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24년에도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논의를 거쳤으나 영세 사업자의 비용 증가를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시도는 무산됐다.

현행 제도는 2012년 이후 개업한 사업장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고, 퇴직금 제도 또한 인정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은 낮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는 영세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영세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과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승진 기자 asj1231@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퇴직하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연금

개비 IS Free~!

IRP 수수료 FREE

연금 전문가 상담 FREE

실시간! 적립식 ETF 거래도 자유롭게

KB증권

연금으로 미리 PICK 하셔야 가능합니다.

퇴직 후 고민을 뚝! 자유를 뚝! 개비증권

\*KB증권 중개감사인 심사필 제2025-2118호(2025.08.19~2026.08.18)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RO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제1금융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 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 설명서·권한투자계약 필수 \*자산 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과세 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는 연 0.20%~0.25% (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ETF 거래 시 HTS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0.1278%+2,000원, 모바일 0.1978% 기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펀드 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KB증권